

고흥군, 오는 8월 14일부터 2026년산 햅쌀 예약판매

고흥물·서울 코엑스서 동시 예약판매... 8월 24일부터 순차 배송



고흥군청 전경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8월 14일부터 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고흥물'을 통해 2026년산 햅쌀 예약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약판매는 올해 고흥에서 수확한 신선한 햅쌀을 전국 소비자에게 빠르게 선보이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은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춘 농업 지역으로 조생종 벼 재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모내기와 수확 시기가 빨라 매년 이른 시기에 햅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2026년산 햅쌀은 고흥지역 농가가 정성껏 재배한 벼를 수확한 뒤 신속하게 건조·도정한 상품이다.

윤기가 풍부하고 밥알이 부드러우며, 갓 수확한 햅쌀 특유의 신선한 향과 찰진 식감을 느낄 수 있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본격 운영

보성군은 보성문화원과 함께 오는 10월까지 보성향교 일원에서 '2026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 「보성향교, 모두의 문화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 지원으로 추진된다. 보성향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국가유산을 지역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연령과 참여 특성에 따라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차·공예·전통 소리를 접목한 '보성향교에서 펼쳐지는 보성판 문화살롱',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한 '보성향교 입문기-전통과 미래를 잇는 꼬마선비들', 공원과 전통놀이를 즐기는 '보성향교 밭과 흥이 넘치는 날'이다. 사업의 첫 프로그램인 '차향 품은 향교 공방'은 7월에 이어 오는 8월 21일과 26일 보성향교 명륜당에서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폭염·가뭄 피해 막아라" 연일 현장점검 구슬땀

해남군이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연일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명현관 군수와 부서별 담당자들은 주말에 이어 10일에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관내 농업 현장과 저수지, 무더위 쉼터 등을 방문하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이날 오전 명군수는 직원 정례회의를 통해 "폭염과 가뭄, 산불 발생 등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부서에서는 어떠한 누수없이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산이면 조재배농가를 비롯해 황산면 흑암저수지, 문내면 분회 경로당으로 일정이 이어졌다. 해남군내 374개소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균 53.3%로, 특히 21개소는 저수율 30% 미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폭염과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만감류·유자 농가 맞춤형 해충방제 교육

진도군농업기술센터는 센터 내에 있는 교육장에서 관내 만감류 및 유자 재배 농가와 일반 농업인 등 약 40명을 대상으로 '농가 실천형 만감류·유자 해충방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주요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해 만감류와 유자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과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약제 저항성을 줄이는 '농약 교차살포법'(작용기작 번호의 의미, 침투·침달성 특성) ▲해충별 생태에 맞춘 '다이밍 방제 전략'(발생·피해 양상별 방제 적기) 등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실천형 교육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 나서

장흥군이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정책 건의 등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흥군은 전남광주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대한민국 중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역별 균형배치와 중남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배치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특히 통합 행정체계 출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주요 행정기능이 특정 권역에 편중될 경우 중남권의 행정·공공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남권 공공기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근 기자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 출하 올해 48톤 생산

해풍 맞고 자라 당도 높고 향 진한 것이 특징



완도자연그대로 해변 포도 수확하는 모습

/완도군 홍보팀 제공

청정 바다의 해풍을 맞고 자란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 포도'가 출하 철을 맞았다.

완도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해풍 등으로 포도 재배에 적합해 군외면 등 20개 농가(13.6ha)에서 캠벨얼리, 샤인머스켓, 거봉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예상 총 생산량은 48톤이다.

7월 하순부터 시설에서 재배한 포도가 출하됐으며, 노지 포도 수확은 8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 포도'는 해풍을 맞고 자라 포도알이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14 브릭스(Brix)로 달콤함과 향이 뛰어나다.

포도는 비타민과 아미노산, 유기산 등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특히 '완도 자연 그대로 해변 포도'는 일반 포도

에 비해 미네랄이 풍부하다. 완도 진입 시 군외면 해안도로를 이용하면 당일 수확한 포도를 구입할 수 있다.

군외면의 한 농가에서는 "고품질의 해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더니 캠벨얼리는 16 브릭스, 샤인머스켓은 18.2 브릭스로 당도가 높게 나왔다"면서 "제철 맛은 달콤한 완도 해변 포도를 꼭 맛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을 활용한 고품질 포도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제철을 맞은 해변 포도는 높은 당도와 풍부한 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군은 지역 특산물인 해변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레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